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복합산업을 접목한 도시 환경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7대 문화권의 하나인 '아시아문화교류권'에 포함된 양림동을 둘러보고 있는 관광객.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도심에 유스호스텔 근대역사관 건립 필요

아시아문화수도 조성 7대 문화권 수정 계획 중간 보고회 사업 대상지 확대...문화전당 조성 효과 도심 전역 미치게

광주 동구 문화전당권에 '유스호스텔'과 '도시 근대역사관' 등을 건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광주 남구를 축으로 한 '아시아문화교류권'에는 아시아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지원포럼)은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7대 문화권 수정계획 연구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7대 문화권은 광주를 7개 문화권으로 나눠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현안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4341억원 가운데 1430억원만 집행되는 등 사실상 지지부진한 사업이었다.

아시아문화교류원센터와 시민예술촌조성, 아시아문화원 유치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 아시아신과학관(광산구 비아동 일대)은 광주 R&D특구와 송암·하남·소촌동 등 산단을 아우른 권역으로 확대된다.

신규 사업으로는 한국문화기술 연구소운영 활성화가 꼽혔고 기존의 전승과학융합연구 사업은 삭제됐다. 아시아전승문화관(남구 칠석·마루·대촌·효천역세권)에는 제봉산 편백림(도시숲)과 포송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구제책 사업으로는 아시아전승기술센터 설립과 아시아 줄문화축제가 추진됐다.

지원포럼은 문화경관·생태보존권(무등산 시가문화권·영산강 일원), 교육문화권(서구 마루동 탄약고 부지), 시각미디어 문화권(중외공원 일대)의 사업권역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새 사업으로는 '광주 돌레 문화생태 잇다길 조성' '에듀컬처시범학교 및 에듀타운 조성' 사업이 제시됐다.

7대 문화권 사업 내용이 2005년 발표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아 급변하는 문화지형과 융복합 산업 환경, 미래사회 변화 대비 등을 위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번 제안 내용을 검토, 수정한 후 8월 중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문체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2018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수정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효성 글로벌 기업 육성...한·미 FTA 성공 주역

조석래 전 효성 회장 경영일선 물러나...3세 경영 안정적 구축 판단

전주에 탄소섬유공장 본사·문화예술 발전 관심 등 호남 사랑 각별

조석래(82·사진) 전 효성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효성그룹의 경영도 창업 2세에서 3세로 넘어가게 됐다.

효성그룹은 조 전 회장이 고령과 건강 상의 이유로 지난 14일자로 (주)효성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16일 밝혔다.

효성그룹은 "회사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경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 중심의 경영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는 판단 하에 조 전 회장이 사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그간 고령에도 불구하고 효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대표이사로 책임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전 회장은 1981년 효성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경영혁신과 주력 사업부문의 글로벌화를 이

끌며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일경제협회장 등을 역임한 조 전 회장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알리며 미국 등 주요 협력국과 재계·민간경제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국 경제계 수장으로서 당시 우리가 미국과 FTA를 왜 타결해야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어조로 설득했으며 정부의 노력과 보조를 맞춰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또 미국 정부와 협의를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규제등급 완화를 이끌어내는 등 민간외교 차원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이와함께 조 전 회장은 호남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 금호그룹의 고(故) 박성용 회장 등 호남 주요 인사들과 교분이 있었으며 호남 문화예술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효성 탄소섬유공장 본사를 전주에 둔 것도 호남사랑의 일면이다.

그를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건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나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후진 양성을 위해 조건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의 사임에 따라 조현준 회장은 중심으로 하고 조현상 사장이 경영 혁신과 주력 사업의 글로벌화 등에 총체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룹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효성은 1966년 11월 3일 창업한 동양나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창업주는 고(故) 조흥재 회장이다. 조흥재 회장은 1981년 장남인 조석래 전 회장에 의해 효성이 물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수원 기습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4일 오전 경북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전날 경주 본사에서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경주 스위트호텔로 장소를 옮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일부 여론의 반대 속에 이날 안건을 기습 통과시켰다는 점에 대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3개월간 공론화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다. 3개월 뒤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의결로 공사 관련 업체 총사자 1만2800명의 일자리도 흔들리게 됐다. 공론화 기간인 3개월간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000여원이 될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추산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700여곳이며 현장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앞선 정부에서 원전이 필수라고 했던 한수원 이사진들이 정부 바뀌었다고 졸속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천일염 가격 안정대책 촉구

정연선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전원이 천일염 가격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다. 가격 폭락으로 국내 천일염산업이 위기(광주일보 7월6일자 1·3면)에 처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는 정연선 의원(신안)을 비롯해 도의원 전원이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저염식 문화 확산 등으로 소비는 정체된 반면 가뭄·폭염으로 국내산 천일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 천일염 생산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실제 6월말 기준 천일염 20kg 기준 1포대 가격은 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600원에 비해 35% 하락했다.

반면 천일염 재고량은 지난 5월 말 현재 11만 1000t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7만t)보다 58.6% 늘었다. 특히 값싼 수입산 사용 소급은 국내 생산량보다 많은 35만t에 매년 수입돼 대규모 소비처에 공급되고 있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천일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용 천일염 4만t을 조기 구매하고, 적정 생산을 위해 폐전·폐업 지원, 품질 고급화 등 천일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김치류(절임배추용)·장류·젓갈류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민간공원' 1면에서 계속

광주시 역시 도시공원을 보존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개발사업을 추진해본 적이 거의 없는 공원 녹지과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맡으면서 지역 여건이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3~4년간 광주지역 내 고층 아파트 신축이 이어져 아파트 건축 가능 부지가 거의 없는 데다 '공원 속 아파트'라는 브랜드를 얻을 수 있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공고 준비 과정이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토지매입이나 재개발을 반영에 대한 과도한 배제, 아파트 시공실적만 인정해주는 방식, 토지소유자 및 도시공원 내 거주자 파악 미흡 등의 문제는 공고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시공원 가운데 개발 우선지, 즉 건설업체들이 선호하는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보존 가치, 미래 세대 자산, 기후 변화, 녹지 공간 감소 등의 사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광주시청 내에서조차 난개발 방지를 위해 4곳 공원의 30%씩 개발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오히려 1곳 모두를 개발하는 방식, 업체 대상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이에 따른 공고 수정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이미 예견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모두 무관심하다가 시기가 닥치자 서둘러 개발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도시공원을 바라보면서 생긴 일"이라며 "보존 가치가 높은 도시공원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하며, 이에 대한 광주만의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웅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웅2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방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안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 료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산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산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 션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산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서귀포시 대정읍 신광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커피, 음식점가능]

토 지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신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탐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의 노하우 **올레탐공인중개사** 기성후·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광주바이블칼리지 신입생모집

현 전도사 사역자 특별우대! 여목사제도!

광주바이블칼리지 입학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2. 모집인원 : 월요일, 저녁반(월, 화), 토요일 각 30명 내외
3.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장명인), 최종학교 졸업증서 및 성적증서
4. 접수 처 : 본교 행정실
5. 등록금과 장학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본교 교수진	광주바이블칼리지 소개
신학박사 김성호	- 개혁주의 보수교단에 속한 유망교수들의 수준높은 강의
신학박사 김성호	-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학회 인준신학교로 졸업후 목사안수제도 (여목사제도)
신학박사 김성호	- 오랜 경력의 교수들이 담당하는 개혁신학 강의와 구구사적인 융합한 가르침
신학박사 김성호	- 목회사역과 현장중심의 실재적인 수업
신학박사 김성호	석박사 학위과정
신학박사 김성호	- 미국 엘리노이아 디퍼낸스 대학교와 학사교류 협력 (M.A.)
신학박사 김성호	- 석사과정 : 목회학 석사(M.Div) = 5학기 (30학점)
신학박사 김성호	- 박사과정 : 목회학 박사(Ph.D) = 6학기 (36학점)

광주바이블칼리지 광주국제기독교대학교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산도리 산 72)
☎ 061-381-0000